

LuaTeX-ko 간단 매뉴얼

Dohyun Kim <[nomos at ktug org](#)>

<<http://github.com/dohyunkim/luatexko>>

Version 1.5 2014/05/11

For a summary introduction in English, please see [README](#) file.

v1.0 ——

- 플레이인텍에서도 luatexko.sty를 불러야 한다.
- 패키지 옵션 `unfonts`가 선언되지 않으면 은글꼴을 자동으로 부르지 않는다.
- 글꼴 옵션값을 `<dimen>`으로 지시한다.
- METAPOST 코드를 넣으려면 luamplib 패키지를 불러야 한다.

v1.3 ——

- fallbackfont 계열의 명령이 추가되었다.
- `\hangulpunctuations` 선언이 추가되고, `QuoteRaise` 옵션이 없어졌다.
- `\josaignoreparens=1`이 선언되면 자동조사 결정시 괄호 부분을 무시한다.

v1.5 ——

- 세로쓰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적 코드가 들어갔다.
- `\actualtext` 명령이 추가되었다.
- 한글·한자 글꼴의 지정이 없으면 나눔 Type1을 이용한다.
- 패키지 옵션 `[nofontspec]`이 추가되었다.

1

T_EX Live 2013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. 세로쓰기를 위해서는 T_EX Live 2014 이상이 필요하다. 아직 LuaT_EX은 베타 상태로 개발 중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다.

2

LuaTeX-ko 로드하기: `\usepackage{luatexko}`. 플레이인텍은 `\input luatexko.sty`. 입력은 원칙적으로 UTF-8으로 한다. BOM (Byte Order Mark)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. CP949 인코딩에 관해서는 제18절 참조.

3

패키지 옵션으로 `[hangul]` 과 `[hanja]` 가 제공된다. 행간격 조정이 행해지며 장 제목이나 표·그림 캡션 따위가 한글 또는 한자 방식으로 표시된다. 다만 장(chapter) 제목과 편(part) 제목에만 “제(第)”가 붙어 “제 1 편” “제 3 장”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며 절 제목 이하에는 붙지 않는다.

`[unfonts]` 는 은글꼴 트루타입을 불러오는 패키지 옵션이다.¹ 이전 버전과 달리 은글꼴이 기본으로 로드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.

`[nofontspec]` 옵션을 주면 fontspec 을 부르지 않는다. 따라서 아래 4, 5, 6, 8, 10 절의 유니코드 한국어 글꼴 설정 명령들도 사용할 수 없다.

4

`LuaTeX-ko`를 로드하면 fontspec 패키지를 자동으로 불러온다. 글꼴 설정에 대해서는 fontspec 문서를 참조하라.

한국어 글꼴을 위해 새로 마련한 명령은 다음과 같다.

```
\setmainhangulfont      \setmainhanjafont      \setmainfallbackfont
\setsanshangulfont     \setsanshanjafont     \setsansfallbackfont
\setmonohangulfont    \setmonohanjafont    \setmonofallbackfont
\newhangulfontfamily   \newhanjafontfamily   \newfallbackfontfamily
\addhangulfontfeature \addhanjafontfeature \addfallbackfontfeature
\hangulfontspec        \hanjafontspec       \fallbackfontspec
```

`\adhochangulfont` `\adhochanjafont` `\addhocfallbackfont`는 각각 `\hangulfontspec` `\hanjafontspec` `\fallbackfontspec`의 다른 이름이다.

플레인텍에서 한글 글꼴 설정은 영문 글꼴 지정하는 방식과 거의 같다.

```
\hangulfont=UnDotum\relax
\hanjafont=UnDotum at 14pt
\fallbackfont=HanaMinB at 12pt
\hangulfont=UnDotum scaled 2000
\hanjafont="HCR Batang LVT"\relax
\hangulfont={HCR Batang LVT:script=hang;+dlig} at 12pt
```

5

원칙적으로 `LuaTeX-ko`는 지시된 글자가 영문폰트에 없으면 한글폰트에서, 한글폰트에도 없으면 한자폰트에서, 한자폰트에도 없으면 fallback 폰트에서 글자를 찾아 찍는다. 세 가지

¹ `nofontspec` 옵션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. 또한 이 옵션은 deprecated 상태로서 2015년에는 사라질 예정이다.

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.
 天^天上^上上^上白^白玉^玉 옥^京경^경을 엇디^へ야 离^ニ別^別별^へ고
 히^ヒ 다^적 쳐^め는 날^의 눌^을 보라^라 가시^는고
 어와^エ 네여^イ이고^イ 내^ス 설^설 드러^보보^オ.
 내^내 얼굴^{얼굴} 이^이 거동^{거동}이^이 님^님 괴암^{괴암}즉^즉 훈가마^마는
 엇딘디^エ 날^날 보시^고 네로다^{ネロダ} 녀기실^실시^シ
 나도^{나도} 님^님을^을 미더^{미더} 군^군 떠^디 전혀^{전혀} 업서^{업서}
 이리야^{エリヤ} 교^교티야^{ティヤ} 어^어즈^ズ러^{ライ} 구^구듯^ド쩐^ヂ디^ヂ
 반기시^는는^는 놋^노비^ビ치^チ 네^와 엇^で 딸^ル신^신고^ゴ.

그림 1: 옛한글 조판 보기

모두 지정되지 않았다면 나눔 Type1 폰트를 이용한다. 기존 *ko.TEX* 과는 글꼴 대체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.

하지만 `\hanjabyhanja font=1`을 선언하면 한자는 우선 한자글꼴로 식자한다. 0을 선언하면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. 이 명령은 문단 중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 문단 중에 사용되었다면 그 문단의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`\hangulpunctuations=1`을 선언하면 영문 문장부호들을 한글 폰트로 식자한다. 0을 지시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. [hangul] 옵션을 주면 `\hangulpunctuations=1`이 자동으로 선언된다.² 이 선언에 의해 영향 받는 문장부호들을 다음처럼 지정할 수 있다. 인자는 콤마로 연결된 숫자 형식으로서 유니코드 코드포인트를 뜻한다.

```
\registerpunctuations{45, "2D, `~}
\unregisterpunctuations{"2D, "2015}
```

6

fontspec의 글꼴 옵션 외에 LuaTeX-ko가 따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.³

InterHangul 한글 글자 사이의 자간. 아래는 $-0.04em$ 만큼 한글 자간을 지시한다.
 플레인TeX에서는 `interhangul`.

```
[InterHangul=-0.04em]
```

² 나눔 Type1 상태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³ 옛한글 식자를 위해서는 `[Script=Hangul]` 옵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.

InterLatinCJK 한글 또는 한자와 라틴 문자 사이의 자간을 설정한다. 플레인텍에서는 `interlatincjk`.

[`InterLatinCJK=0.125em`]

CharRaise 글자의 세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. 이로써 주변에 식자되는 다른 글꼴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. 플레인텍에서는 `charraise`.

[`CharRaise=0.1em`]

PunctRaise 한글 또는 한자 다음에 라틴 구두점—마침표에 한한다—이 왔을 때 그 세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. `\hangulpunctuations`로 인해 거의 쓸 일이 없게 되었다. 플레인텍에서는 `punctraise`.

[`PunctRaise=-0.125em`]

Protrusion 특정 글자가 행 끝에 왔을 때 판면 바깥으로 끌어내는 기능이다. Lua^{AT}E_X의 기본값은 구두점들만 완전히 글자내밀기 한다. 즉 hanging punctuation이 작동한다. 플레인텍에서는 `protrusion`.

[`Protrusion`]

이는 `Protrusion=default`와 마찬가지 뜻이다. 마이크로타입에 관심 있으면 자신만의 설정을 만들어 지정할 수 있다.

Expansion 판면의 균일한 조판을 위해 글자들을 미세하게 늘이거나 줄이는 기능이다. 플레인텍에서는 `expansion`.

[`Expansion`]

이는 `Expansion=default`와 마찬가지 뜻이다.

7

고문현 · 일본어 · 중국어 조판을 위해 `japanese`, `Schinese`, `Tchinese` 환경을 제공한다. `chinese`는 `Schinese`의 다른 이름이다. `korean` 환경도 마련했는데 이들 환경 안에서 잠깐 한국어를 조판하는 데 사용한다. 일본어 · 중국어라도 글꼴 설정은 `\newhangulfontfamily` `\newhanjafontfamily` 따위를 이용한다. 그림 2 참조. 플레인텍에서는 (문서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룹을 열고) `\chinese \japanese` 따위를 사용한다.

Lua^{AT}E_X-ko가 글자 사이에 삽입하는 미세간격을 사용자가 영(zero)으로 강제하기 위해선 `\inhibitglue` 명령을 이용한다. 대체로 일본어 · 중국어 환경에서만 문제된다.

子曰：「學而時習之，不亦說乎？有朋自遠方來，不亦樂乎？人不知而不慍，不亦君子乎？」

有子曰：「其為人也孝弟，而好犯上者，鮮矣！不好犯上，而好作亂者，未之有也！君子務本，本立而道生；孝弟也者，其為仁之本歟？」

子曰：「巧言令色，鮮矣仁！」

曾子曰：「吾日三省吾身：為人謀，而不忠乎？與朋友交，而不信乎？傳，不習乎？」

子曰：「道千乘之國，敬事而信，節用而愛人，使民以時。」

子曰：「弟子入則孝，出則弟；謹而信，汎愛衆；而親仁，行有餘力，則以學文。」

그림 2: 고문현 조판 보기

구이 친마 (The Silent Beloved)	한국어
남은 것입니다	아아 사랑하는 나의 남 은 것입니다
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 야 난 적인 길을 거러서 참어 떨치고 갓습니다	황금의 꽃가티 굿고 벗나든 옛 盟誓는 차디찬 땀끌이 되어서 한숨의 微風에 나려갓습니다
날카로운 첫 「키쓰」의 追憶은 나의 운命 의 指針을 돌더니 노고 뒷거름 쳐서 사 러졌습니다	…
제곡조를 뜯어가는 사랑의 노래는 남의 沈默을 휩싸고 돋습니다	아아 남의 것지마는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하았습니다

그림 3: 세로쓰기의 예

8

세로쓰기는 폰트의 고급 오픈타입 자질을 이용하므로 폰트가 이를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다. 폰트에 `Vertical=RotatedGlyphs` 옵션을 준다. 플레인텍이라면 `vertical;+vrt2` 옵션. `vrt2` 자질을 갖지 않는 폰트를 쓰는 경우 `vert` 자질을 명시해주어야 한다. 둘 다 없으면 세로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글꼴이다. 세로쓰기에는 **LuaTeX 0.79 이상**, 즉 TeX Live 2014 이후 버전이 필요하다.

문서의 일부를 세로쓰기하려면 `\begin{vertical}{<dimen>} ... \end{vertical}` 환경을 이용하라. `<dimen>`으로 세로쓰기 박스의 높이를 지시한다. 그림 3 참조. 플레인텍에서는 `\vertical{<dimen>} ... \endvertical`.

문서 전체를 세로쓰기한다면 이 환경을 쓰는 대신 `\verticaltypesetting` 명령을 전처리부에 선언한다. 이때 면주의 폰트에는 세로쓰기 옵션이 없어야 할 것이다.

```
\usepackage{luamplib}
...
\begin{mplibcode}
beginfig(1);
    draw fullcircle scaled 2cm;
    dotlabel.bot(btex \TeX etex, origin);
    dotlabel.rt(btex 루아 etex, dir45*1cm);
endfig;
\end{mplibcode}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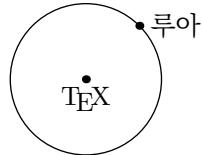


그림 4: mplib 용례

9

전처리부에서 `\usepackage{luamplib}`을 선언하면 METAPOST 코드를 문서 중간에 삽입할 수 있다. 한글이나 수식은 `btx ... etex` 안에 넣어야 한다. 그림 4 참조. 상세한 것은 luamplib 패키지 문서를 참조하라.

10

`$가^{나^다}$` ⇒ 가나^다

수식 모드에서도 한글을 (hbox로 감싸지 않고) 직접 입력할 수 있다. 문서의 기본 한글 글꼴이 자동으로 수식 한글에도 적용되므로 따로 설정할 것이 없지만 굳이 한다면 다음처럼 지시한다.

`\setmathhangulfont{HCRBatang}`

현재 한글만 쓸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. 한자도 수식에 직접 입력하려면 사용자는

`\setmathhangulblock{4E00}{9FC3}`

명령으로 유니코드 블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.

11

`\dotemph` 명령으로 드러낸표를 이용한 강조를 할 수 있다. 기본은 글자 위에 점을 찍는 형태이나 다음과 같이 명령을 주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호를 드러낸표로 쓸 수 있다.

① `\def\dotemphraise{0.4em }:` 드러낸표를 피강조 글자 위로 끌어올리는 길이

② `\def\dotempchar{\bfseries ^^^^02d9}:` 드러낸표 기호 자체를 정의. `^^^^02d9`

는 유니코드 코드포인트를 뜻하는 16진수이고 소문자로만 써야 한다. 숫자 대신 직접 문자를 입력해도 된다. 플레인텍에서도 쓸 수 있다.

12

루비를 달 수 있다. ruby 패키지가 이미 존재하지만 LuaTEX-ko와 궁합이 잘 맞지 않아 새로 매크로를 제공한다. 플레인텍도 지원한다.

\ruby{漢字}{한자} ⇒ ^{한자} 漢字

이처럼 글자별로 따로 루비를 달 필요가 없다. 관련 설정은 다음처럼 한다.

- ① \rubyfont: 루비를 식자할 폰트를 지시해 둔다. 기본값은 현재 폰트.
- ② \def\rubysize{0.6}: 루비 글자 크기를 본문 글자 크기에 대한 비율로 지정
- ③ \def\rubysep{0.2ex}: 루비와 본문 글자 사이의 간격을 지정
- ④ \rubynooverlap: 루비의 폭이 본문 글자의 폭보다 클 때 루비가 이웃 글자를 위로 빼거나 가지 못하게 한다. 본문 글자의 흐름을 중시하여 \rubyoverlap을 기본값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따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.

13

ulem 패키지가 LuaTEX-ko와 궁합이 잘 맞지 않아(줄바꿈에 문제가 있음) 명령을 따로 제공한다. 플레인텍에서도 쓸 수 있다.

\uline{밑줄을 그을 수 있다}	⇒ 밑줄을 그을 수 있다
\sout{취소선을 그을 수 있다}	⇒ 취소선을 그을 수 있다
\uuline{밑줄을 두 줄 긋는다}	⇒ 밑줄을 두 줄 긋는다
\xout{빗금으로 취소할 수 있다}	⇒ 빗금으로 취소할 수 있다
\uwave{물결표로 밑줄을 삼는다}	⇒ 물결표로 밑줄을 삼는다
\dashuline{대시로 밑줄을 삼는다}	⇒ 대시로 밑줄을 삼는다
\dotuline{밑줄을 점선으로 긋는다}	⇒ 밑줄을 점선으로 긋는다

관련하여 다음 설정을 할 수 있다.

- ① \def\ulinedown{0.25em}: 밑줄을 베이스라인 아래로 끌어내리는 정도
- ② \def\ulinewidth{0.04em}: 밑줄의 굵기

14

자동조사는 ko.TEX과 동일하게 \은 \는 \이 \가 \을 \를 \와 \과 \로 \으로 \라 \이라 따위를 사용한다. 문장 중에서도 작동할 뿐만 아니라 플레인텍도 지원한다. 버전 1.3부터는 \josaignoreparens=1이 선언되어 있으면 자동조사는 **괄호 부분을 건너뛰고** 그 앞 글자에 매칭한다. 0이 선언되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간다.

```
\josaignoreparens=1  
홍길동(1992)\는 ⇒ 홍길동(1992)은  
홍길동(2001)\로 ⇒ 홍길동(2001)으로  
  
\josaignoreparens=0  
홍길동(1992)\는 ⇒ 홍길동(1992)는  
홍길동(2001)\로 ⇒ 홍길동(2001)로
```

15

항목 번호를 한국어 기호로 붙일 수 있다. `ko.TEX`과 동일하게 `\jaso \gana \ojaso \ogana \pjaso \pgana \onum \pnum \oeng \peng \hnum \Hnum \hroman \hRoman \hNum \hanjanum` 따위를 사용한다.

16

`\actualtext{...}` 명령은 인자를 식자함과 동시에, **입력한 문자 그대로** PDF에서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게 해준다. 인자가 두 페이지에 나눠지지 않도록 유의한다. 모든 PDF 리더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. 예: $\sqrt{2}$, ♂·♀:내. 인자가 글자 없이 그림으로만 돼있다면 `\actualtext*{...}` 방식을 이용한다.

17

`\luatexhangulnormalize=1`이라 지시하면 첫가끝 자모를 완성형 음절로, 2라면 완성형 음절을 첫가끝 자모로 인코딩 변환한다. 0이 할당되면 인코딩 변환 기능이 꺼진다. `XeTEX`의 `\XeTeXinputnormalization` 명령과 유사하나 오직 한글과 일부 한자에 대해서만 정규화가 작동하는 점에서 `XeTEX`의 그것에 비해 기능이 한참 모자란다.

18

권장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입력 인코딩이 UHC (CP949라고도 하며 EUC-KR을 포함한다)인 파일을 처리할 때는 `\luatexuhcinputencoding=1`을 선언한다. 0을 할당하면 다시 UTF-8 입력으로 간주한다. `XeTEX`의 `\XeTeXinputencoding` 명령과 유사하나 오직 한국어 문자만 처리할 수 있어 `XeTEX`의 그것에 비해 기능이 한참 모자란다.

19

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파일 이름이 UHC로 인코딩되어 있다면 `\luatexuhcfilenames=1`을 선언한다. 0을 할당하면 다시 UTF-8 이름으로 간주한다. 윈도 계열 운영체제에서만 문제될 것이다. □